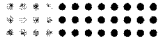


# 세계 주요 타이어업체의 최근 동정

## 1. 타이어 수요 급감에 따른 주요메이커들의 대처 (단신)

최근 세계 타이어메이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글로벌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자동차 및 타이어 수요 급감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장 및 생산라인 폐쇄, 생산량 조정, 인원 및 비용 감축 등 힘겨운 대처를 하고 있다.

### 브 · 리 · 지 · 스 · 톤



#### 북미 La Vergne 공장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라인 폐쇄

브리지스톤 북미사는 올 3월 중순부터 동사의 테네시주 La Vergne 공장에서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나갈 방침이며, 543명의 인원 해고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동 폐쇄 조치 및 이에 따른 인원감축에 대해 사원들에게 고지했으며, 중대형 트럭 타이어 생산라인은 적어도 올해 4/4분기까지 생산량의 감소는 있겠지만 생산라인을 유지할 계획이다.

(자료 : 미국 「Rubber & Plastics News」,09.29일자)

에서의 타이어 생산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시장 조건 악화, 특히 신차용 타이어 시장의 상황 악화에 따른 것이다. 동 감축계획에는 해당 지역 5개 공장에서의 인원 및 생산량 감축 그리고 시간외 근무 감축 등이 포함될 것이다.

(자료 : 미국 「Rubber & Plastics News」,09.29일자)

### 굿 · 이 · 어



#### 공장폐쇄 및 생산감축 계획

굿이어사는 세계 경기 불황과 이에 따른 타이어 수요 급감에 따른 조치로서 올해 1월 말까지 동사의 버지니아 주 Radford 고무 믹싱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며, 동 공장의 생산설비는 뉴욕주의 Buffalo 공장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또한 적어도 향후 몇 개월간 아시아와 남미 지역, 그리고 북미지역의 생산 공장에서의 타이어 생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자료 : 미국 「Rubber & Plastics News」,09.29일자)

### 미 · 쉘 · 린



#### 북미지역 타이어생산 감축계획

미쉐린 북미사는 동사의 미국과 캐나다 타이어 공장

쿠 · 퍼



**미국 Georgia주 Albany 타이어 공장 폐쇄 결정**

쿠파사는 미국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에 따른 감축책으로 동사의 미국 타이어 공장 4개(Georgia주 Albany, Mississippi주 Tupelo, Arkansas주

Texarkana와 Findlay) 중 1개 공장 폐쇄를 위하여 지난 2개월 간의 검토를 통하여 마침내 Georgia주 Albany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파사는 동 공장의 폐쇄에 따라 나머지 3개 공장에 인원을 확충, 매일 24시간 생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 : 미국「Tire Review」09. 1월호)

**2. 일본 타이어메이커의 불황 대처동향**

일본 타이어 전문지인「타이어 신보(新報)」사에서 실시한 “최근의 불황 심화에 대한 일본 타이어메이커의 대처동향”에 대한 긴급 앙케이트 결과에 따르면, 타이어업계는 불황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 앙케이트는 생산과 고용 두 부문에 대한 것이며, 대상은 일본타이어제조사 4개사(브리지스톤, 요코하마고무, 스미토모고무, 도요고무)이다.

(1) 생산부문

일본 4개사의 올해 1월 기준 공장가동률을 보면, 공장별로 조업일수 단축을 통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브리지스톤은 지난해 가동률 98%에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요코하마는 국내의 공장 모두 90% 미만, 스미토모는 국내외 모두 80%의 가동율을 보였고, 도요는 응답을 유보하였다.

각사의 2월 이후 가동 일수 감축 등 생산조정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브리지스톤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요코하마는 향후 판매동향을 보아 생산계획을

임기응변 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스미토모는 2월 이후에도 모든 국내외 공장에서 가동율을 80%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도요는 아직 생산조정성에 대해 결정을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 고용부문

期間근로자(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에 해당) 조정 등 기실시 대책 및 향후 실시예정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서 브리지스톤은 계약 및 파견사원에 대하여는 생산계획 수정에 맞춰 계약기간 만료 시 종전계약 불갱신 등의 대응을 실시할 것이며, 해외에서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대로 미국 라반공장에서 148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요코하마는 기간근로자의 계약 불갱신에 의한 고용 자연감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스미토모는 상기 계약 불갱신 대책 외에도 시간외 근로 축소, 배치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요는 조업일수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자료 : 일본 「주간 타이어신보」, 09.1.26일자 )